■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603-630.
http://doi.org/10.17948/kcs.2023..98.603

1930년대-2020년대 '백백교 서사'에 대한 계보학적 고찰
—식민지적 치안, 도착적 성, 음모론적 자본에 관한 다시 쓰기의 문화적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이은선(李恩仙)*

목 차

1. 서론
2. 1930년대-1940년대: 유사종교 규정과 총독부 치안 정책의 실패
3. 1960년대-1990년대: 성범죄 가해자와 함께 즐기는 도착적 시선
4. 2000년대-2020년대: 백백교 자금(資金)의 수수께끼와 음모론의 대두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1930년대에서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백백교'를 다루는 텍스트가 지속적으로 창작되어 왔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백백교 서사'는 사건 당시 동시대인의 시각을 담고 있는 텍스트부터 오늘날의 '미스터리 장르물' 사이에서 상당한 전변(轉變)을 겪었다. 1930년대-1940년대 텍스트에서는 '유사(類似)종교'로 규정한 식민지 당국의 영향력 아래 정치 및 치안의 관점에서 묘사되었다. 1960년대-1990년대 텍스트에서는 '성(性)'의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백백교 교주의 악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전도가 일어나, 성도착적(性倒錯的) 시각이 표면화된다. 2000년대-2020년대 텍스트에서는 백백교 자금의 행방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드러나고, 교주 전용해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음모론적 가정이 서사적 장치로 활용된다.

'백백교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백백교 서사'를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당시 식민 통치자의 관점과 경합하는 데서 출발하여, 도착적인 성 인식으로 초점을 옮긴 후, 백백교 자금 및 교주의 죽음을 둘러싼

* 한경대 브라이트칼리지 강사.

미스터리로 변모한다. ‘백백교 서사’는 식민지적 치안, 도착적 성, 음모론적 자본을 중심으로 ‘다시 쓰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분석 과정에서 ‘백백교 사건’이 갖는 비극적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백백교 사건’이라는 공통분모에 대해 시기별로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각 시대가 ‘백백교 사건’에 대해 보이는 지대한 ‘관심의 역사’를 일별함으로써 ‘백백교 서사’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한국 문학사 및 한국 문화사에서의 ‘백백교 서사’의 계보를 고찰할 수 있었다.

주제어: 백백교, ‘백백교 서사’, 유사(類似)종교, 사이비 종교, 미스터리.

1. 서론

‘살인종교’로 불리던 백백교 교주의 죽음은 “살인귀(鬼) 전용해는 양평산중서 자문(自刎)”이라는 제목으로 호외 기사로 소개된다. 이때 온갖 악행을 계속해 온 “백백교라는 종교(?)의 정체는 대체 어떠한 것일가?”[1]라는 질문이 던져진다. ‘백백교’를 ‘종교’라고 지칭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위 물음표에 담겨 있다. 당대 신문, 잡지에서는 세계 범죄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다루었고, 집중적인 조명의 결과 조성된 대중의 공포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 ‘종교’ 개념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졌다. ‘종교’와 ‘종교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치안’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가 법률 용어로 만든 ‘유사종교’와 ‘종교’는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 종교 범주는 도덕적인 반면, 유사종교 범주는 비도덕적이라는 헤게모니를 작동시켰다.[2] 따라서 ‘백백교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사회적 사교 유형의 신종교 단체가 치안을 방해하고 민심을 현혹한다는 이유로 검거되는 가운데, 일제가 신종교들 중 반사회적 측면을 부각하여 조선 민중으로부터 탄압에 대한 동조를 얻어내려고 한 목적이 있었음을 고려해야[3] 하는 것이다.

동시대 작가인 박태원과 김사량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 사건을

1) 「환골(換骨)한 살인종교」, 『조선일보』, 1937.4.14., 3면.
2) 고병철, 『일제하 종교 법규와 정책, 그리고 대응』, 박문사, 2020, 4면.
3) 문지현, 「전시체제기(1937-45) 일제의 신종교 정책과 신종교단체 검거사건 연구」, 이화여대 석사 학위논문, 2009, 34면.

큰 시차 없이 소설화하고 있었다. 박태원의 「우맹(愚氓)」과 김사량의 「풀이 깊다(草深し)」는 각각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박태원의 「우맹」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경향으로 나뉜다. 먼저 박태원이 교주의 아들 '학수'가 겪는 비극만을 다루어 당시 민중이 어떤 것을 갈망했는지까지 드러내지는 못했고,[4] 『금은탑』은 범작(凡作)이며, 다소 아쉬움을 남긴 대중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5] 반면 이 텍스트는 단순한 통속소설이 아니라, 1930년대 말 희대의 사건에 대한 작가의 깊은 고민의 산물로,[6] 백백교를 통해 파시즘 메커니즘을 보여주면서, 천황제 파시즘이 제시한 '내선일체'의 허구성을 형상화했다[7]는 평가가 제시되기도 했다. 더하여 문학 장 외부로 추방되었던 기담, 괴담, 유언비어 등의 비-문학적 양식들이 기입[8]된 사례이고, 「우맹」의 내러티브는 일간지 등의 여타 내러티브와 변별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이 사회・윤리적 심판에 놓여 있지 않았다[9]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김사량의 「풀이 깊다(草深し)」에 대한 연구는 '백백교'에 대한 작가의 인식 및 '조선어'/'일본어', '백의'/'색의'의 대립이 보여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10]

---

4) 류수연, 「통속성의 확대와 탐정소설과의 역학관계」, 『구보학보』 1, 구보학회, 2006, 116면.
5) 조성면, 「박태원의 장르실험과 재앙의 상상력—실화소설 『금은탑』 다시 읽기」, 『동남어문논집』 38, 동남어문학회, 2014, 56면.
6) 김미지, 「박태원(朴泰遠)의 『금은탑(金銀塔)』: 통속극(通俗劇) 넘어서기의 서사(敍事) 전략(戰略)—「우맹(愚氓)」과 「금은탑(金銀塔)」의 판본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7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287면.
7) 장성규, 「일제 말기 박태원의 파시즘 인식과 대응—사소설 연작과 『금은탑』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7, 구보학회, 2011, 58면.
8) 장성규, 「전형기 '조선''근대''문학'을 둘러싼 세 겹의 위기와 대응」, 『한국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109면.
9) 구인모, 「사교(邪敎) 대(對) 과학 그리고 문학—백백교(白白敎) 사건을 둘러싼 내러티브적 실천들」, 『사이間SAI』 16,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4, 111면.
10) 김미지강(金美智江), 「김사량 『草深し』 소고」, 『인문과학연구』 1(2),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윤인로, 「일제말기 한국문학의 생극론적 이해를 위한 시론—김사량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22, 동남어문학회, 2006; 김석희, 「김시명(金時明)의 생애와 "친일"—식민지 관료소설로서의 『풀 속 깊이』를 출발점으로」, 『일어일문학연구』 75(2), 한국일어일문학회, 2010; 김보애, 「김사량문학 연구—식민지 지식인의 내면풍경」,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2020; 이희원, 「일제 말기 김사량 소설의 공간 형상화 전략 연구」, 『한국민족문화』 77,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박태원의 「우맹」에 대한 평가에 숨어 있는 논쟁적인 지점은 텍스트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재'로서의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비단 박태원의 텍스트뿐 아니라, '백백교 사건'을 다룬 후대의 다른 텍스트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상갑은 『금은탑』의 해설에서 "실제로 백백교 사건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기보다 엽기적이고 흥미에 그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불과하"[11]다고 단언한 바 있다. 반면 임화는 '학수'를 백백교를 보는 '인테리적' 눈의 하나로 파악하면서, '학수'와 교주가 부자(父子)라는 데서 작자가 그 추잡함, 심각미를 예상했을지 모르지만, "백백교는 그보다 더큰 것이 아닌가"[12]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백백교 서사'에 관한 논의에서 단지 세간의 흥미를 유발하는 소재에 불과하다는 시각과 당대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백백교 사건'을 다루는 텍스트들이 소재주의적 접근을 보여주는 데 그친다는 비판을 재고할 것이다. '소재'에 불과하다는 인식은 '백백교 사건'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생산적인 답변을 찾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1937년의 식민지 조선에서 발표된 텍스트부터 2020년대에 발표된 텍스트에 이르기까지 '백백교 사건'은 지속적으로 형상화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축적된 텍스트 모두가 엽기적인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강화하기에 앞서 보다 정치한 분석이 요청된다.

스릴이 넘쳐 진정시킬 수 없게 하는 책은 불안이 일으키는 즐거움, 독자들을 흥분시키는 문제를 두고 놀이를 한다[13]는 점에서 이 텍스트들이 '장르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한 텍스트를 익숙할 정도로 충분히 경험하더라도, 그 텍스트가 서스펜스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14] '백백교 사건'은 역사적인 결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의 전말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11) 박태원, 『금은탑』 2, 깊은샘, 1997, 294면.
12) 임화, 「속문학의 대두와 예술문학의 비극—통속소설론에 대하야」 4, 『동아일보』, 1938.11.23., 3면.
13) 제레미 탬블링, 이호 역, 『서사학과 이데올로기—서사의 운명과 열린 읽기의 즐거움』, 예림기획, 2000, 179면.
14) 켄달 L. 월튼, 양민정 역, 『미메시스—믿는 체하기로서의 예술』, 북코리아, 2019, 373면.

이야기로 '다시 쓰기' 되고 있다. 그 서사를 추동시키는 힘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백백교 사건을 다룬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백백교 서사'로 지칭하고자 한다.[15] 각 텍스트의 발표 연도를 기준으로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세 시기로 나누어, 시대에 따라 '백백교 서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점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16]

2. 1930년대-1940년대: 유사종교 규정과 총독부 치안 정책의 실패

박태원은 1938년 4월 7일부터 1939년 2월 14일까지 『조선일보』에 「우맹」을 연재한다.[17] 김남천은 「우맹」에서 구보가 살인을 그릴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못할 짓을 하는 것 모양으로 인정주의적 애상에 물들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이왕 백백교를 쓴다면 작자는 좀 더 잔혹하고, 잔인하고, 매정해야 하는데, 이를 해내지 못하는 곳에 구보의 사랑스러운 인간미가 있다는 것이다.[18] 살인 사건의 묘사에 대한 김남천의 비평은 적실한 바가 있다. 그러나 박태원은 백백교의 살인 사건을 핍진하게 묘사하거나, '최건영'의 편에서 백백교의 범죄를 폭로[19]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15) 소설뿐 아니라, 악극, 시나리오, 만화,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도 '백백교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예가 발견되어 이를 포괄하는 용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6) '백백교 서사'가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별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텍스트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 및 논의의 비중이 시기별로 균등하지 않아 논의의 초점이 달라지는 지점이 생겨났다. 2장에서 다루는 텍스트는 기존 문학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반면, 3장과 4장에서 다루는 텍스트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사적 지형을 반영하여, 2장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당대 및 후대의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분석하고, 3장과 4장에서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는 구조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글의 구조에 불균형이 발생하지만, 이 점은 텍스트들 사이의 불균형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텍스트가 글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17) 1949년 7월 한성도서에서 『금은탑』으로 개제, 단행본으로 출간한다. 1997년 7월 깊은샘 출판사에서 신문 연재본을 저본으로, 『금은탑』을 재출간한다(이병렬, 「박태원의 〈금은탑〉 연구: 소설의 허구화 과정을 중심으로」, 『숭실어문』 15, 숭실어문학회, 1999, 331-332면).

18) 김남천, 「살인작가」, 『박문』 10, 1939.8, 9면.

19) '건영'은 자신의 행동이 사적 복수심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동포적 차원의 재앙을 중단시키는

보이지는 않는데, 이는 아들인 '김(전)학수'의 고통이야말로 「우맹」의 서사가 출발하고 끝맺는 지점이 되기 때문이다. '김(전)학수'의 자리에서 '백백교 사건'을 보고, 그의 시각에서 묘사하는 것이 「우맹」의 특징적인 면모이다.

백백교 교주인 아버지는 범죄자이지만, 아들에게만은 좋은 아버지이다. '학수'는 "골육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는 "아들의 행복"을 빈다.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어 혼란스럽다. 물론 '학수'는 '백백교'를 유사종교의 탈을 쓰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는 단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굳이 자세한 내막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가 수하들과 함께 어떤 정도의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모른다.[20]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이유는 '학수'가 아버지의 죄악을 모두 알게 될 경우, 더는 모르는 척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맹」의 서사가 '학수'의 자살로 귀결되는 것은 필연적인 면이 있다.

'학수'가 생각했다는 '유사종교'라는 단어는 당시 식민지 조선 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무라야마 지준은 조선민중의 정신생활을 살필 때, "이조 중세 이후부터 유사종교 발생 당시"까지를 분석 단위로 삼는다. 교육과 문자가 양반계급에만 독점되어, 무지하고 교육받지 못한 민중은 교육과 문자를 아는 양반에게 지도를 받음으로써 생존을 유지했다는 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교육 없는 불쌍한 문맹의 민중"은 지적 비판이 아니라, 오로지 맹목적 신앙에 의지하는 것으로 규정된다.[21] 이는 종교적 억압과 통제의 기제이자 식민지 조선의 역사적 개념이고, 조선의 민중상 및 조선 사회 타율성론과도 불가분의 개념이다.[22]

> 무엄하게도 종교(宗教)의 이름 아래 무지할망정 순량한 백성들을 꾀어 피땀으로 모은 그들의 재산을 아스고 그도 부족하였던가 순결한 딸을 약탈하고 마즈막에는 귀한 생명을 차례차례로 빼앗기 무려 三百여명에 달하는 잔학무도(殘虐無道)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백백교에 모든 것을 다 바친 뒤 마침내 교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명목으로 목숨까지 빼앗기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몸을 떨며,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라 생각한다(박태원, 「우맹」 76, 『조선일보』, 1938.7.9., 4면).

20) 박태원, 「우맹」 65, 『조선일보』, 1938.5.11., 4면.

21) 무라야마 지준, 최길성・장상언 역, 『조선의 유사종교』, 계명대 출판부, 1991, 16면, 18면, 21면.

22) 윤해동・이소마에 준이치 편, 『종교와 식민지 근대—한국 종교의 내면화, 정치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책과함께, 2013, 166면.

> 마교 백백교(白白敎). 듣기만해도 몸서리쳐지는 세게[계]범죄사상에 다른 유려[례]조차 찾을 수 없는 살인마의 집단이 문명을 자랑하는 二十세기의 우리땅 조선에서 오랫동안 폭위(暴威)를 떨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치욕(恥辱)이며 인류 사상의 큰 오점(汚點)이다. 이사실이 한번 천일(天日) 하[아]래 폭로되자 안으로는 사회민심을 충격하여 공포와전률을 느끼게하였고 밖으로는 고대문화의 찬란을 자랑하며 『올림픽·마라손』의 왕자를 내인 조선에 이같이 무서운 범죄가 있었다는 것은 조선문화가 아직도 옅고 치안(治安)이 유지되지못한것이아닐가?고 조선에대한 평가(評價)를 낮후게하였다.([ ] 필자 수정)[23]

채정근의 위 기사는 '백백교 사건'에 대한 당대인들의 이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무지하고 순량한 백성들이라는 시각은 「우맹」의 표제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 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살인마 집단을 향해 있지만, 간접적인 비판은 백성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만약 백성들이 무고한 피해자로 이해되었다면, 우리의 '치욕'과 '오점'이 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문명을 자랑하는 조선이라는 허구적 이상을 사후적으로 상정하고, 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이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세계사적 '문명'과 대비되는 조선의 '어둠'을 살인마 집단과 교도들 사이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24]

백백교를 믿던 '백성'의 무지를 비난하고, 그 비정상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살피는 것에 비해 쉬운 일이다. 예컨대 '백성'이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문맹이기 때문에 백백교를 믿었고, 그로 인해 범죄 조직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설명은 표면에 드러난 요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해당된다. 중요한 것은 백백교를 믿던 '백성'이 정상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백백교의 허술한 교리를 믿었다는 것[25]으로, 그들이 파악하고 있는 현실은

---

23) 채정근(蔡廷根), 「백백교 사건 公判 傍聽記」, 『조광』 6(5), 1940.5., 60면.

24) 1937년, 식민 통치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조선 민중의 '무지'를 거론하는 것은 조선인의 미신적 치료와 위생의 관계 중 전자만을 언표화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 구조를 지닌다. 개항기에서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치료와 위생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전파하는 주체들은 조선 대중의 가장 큰 문제가 미신적 치료에 몰두하면서, 질병의 치료와 위생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데 있다고 역설했다. 이 계몽의 과정에서 '무식한' 조선의 환자들이 등장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는 반면, 우물과 우물물의 문제를 유발하는 기간산업에 대한 식민 당국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점은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다(이은선, 「근대 '미신적(迷信的) 치료' 비판과 계몽적 위생 담론의 전개 과정 연구」, 『우리어문연구』 67, 우리어문학회, 2020, 218-220면).

이미 '홍수'와 같은 재앙이 시작된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김사량의 「풀이 깊다」[26](1940.7.)는 백백교 사건 공판과 두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었다.[27] '인식'은 죄수복 같은 흙빛의 마을 사람들의 옷을 보고, '색의 장려 정책'에 강한 반발심을 느낀다.[28] 그는 여러 "사이비 종교"가 들어와 무지한 산민에 빌붙어 먹으며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29] 이때의 '사이비'는 '비주류'나 '대체' 등의 용어로 대체됨으로써 멸칭으로 사용되지 않는 오늘날의 용례와 달리 명백히 '가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30] 3, 4년 후 '인식'은 경성에서 배달된 잡지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잔악하다는 백백교의 공판 기록을 읽다가 마교의 살인 현장 중 하나로 거론된 곳이 그가 방문했던 폐사 부근 산골짜기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고, 슬픔에 잠긴다.[31]

김사량의 텍스트는 먼저 '색의 장려 정책'의 맥락에서 '백의'에 대한 비판이 일종의 허구하는 점을 지적한다. 이어서 이 '색의 장려 정책'이 시행되는

---

25) 마이클 셔머는 기적, 괴물, 신비를 믿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나 광신자가 아니라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로,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사고 오류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1형 오류는 거짓을 믿는 것이고, 2형 오류는 참을 거부하는 것이다. UFO, 외계인 납치, 심령현상을 믿는 사람들은 1형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들이 무지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해 이런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지성적이지만 잘못된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마이클 셔머, 류운 역,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바다출판사, 2007, 97면, 534면, 537면).

26) 이 글에서는 김석희의 번역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풀이 깊다」를 제목으로 제시한다(김사량, 김석희 역, 『빛 속으로』, 녹색광선, 2021). 곽형덕은 이 텍스트가 한국에서 '풀이 깊다', '덤불 헤치기' 등으로 소개 및 번역된 바 있는데, '풀숲 깊숙이'(「풀숲 깊숙이(草深し)」, 『文藝(朝鮮特輯號)』, 1940.7.)가 원제목과 가장 부합되며 문학적인 뜻도 함유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곽형덕, 「김사량의 일본어 소설 생성과정 연구—〈풀숲 깊숙이〉와 〈산의 신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8,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248면).

27) 곽형덕은 백백교 사건 공판기록과 텍스트의 일부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과, 김사량이 당시 『조광』에 장편소설을 연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조광』(1940.5.)이 소설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곽형덕, 같은 글, 248면, 261면).

28) 김사량, 같은 책, 146면.

29) 김사량, 같은 책, 180면.

30) 로널드 프리츠는 '사이비역사'를 '비주류 역사'나 '대체 역사'라고 표현하는 필자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이비역사'는 '가짜 역사'를 말한다고 단언한다. 이는 사실 관계에서 틀리고 방법론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이다(로널드 프리츠, 이광일 역, 『사이비역사의 탄생—거짓 역사, 가짜 과학, 사이비 종교』, 이론과실천, 2010, 26-27면).

31) 김사량, 같은 책, 184-187면.

방식의 폭력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묘사한다. '색의 장려 정책'과 백백교 사건을 한 텍스트 내에 배치함으로써 백백교의 '백의'가 민중의 소망을 상징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즉 백백교에서 '백의'를 주장하는 것이 곧 '색의 장려 정책' 아래에서 고통받는 민중이 추구하는 '백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민족을 내세웠으나 전혀 민족을 위하지 않았고, 후천개벽을 내세웠으나 그들이 열어젖힌 문은 지옥문[32]이었다는 후대의 평가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색복화를 둘러싼 각종 조직과 정책적 개입이 있었으나, 그 성과는 제한적이었는데, 강제책을 통해 백의에 대한 탄압적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 이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나타나기도 하였다.[33] 이와 같은 대립에 주목할 경우, 백백교를 상징하는 '흰옷'은 그것을 입지 못하게 했던 일제 식민 당국과 대척점에 서서 일제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인다.[34] 이를테면 적(敵)의 적(敵)은 '아군(我軍)'일 것이라는 가정에 따르면, '백의'와 '색의'의 대립 장면에서 '백의'가 조선 민중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의 '적' 역시 '적'일 수 있음을, 적과 아군 사이의 지형은 훨씬 더 입체적임을 김사량의 텍스트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35]

해방 이후 1946년 '백백교 사건'을 다룬 악극사 공연에 대한 광고가 실린다.[36] 1946년 7월 9일부터 단성사(團成社)에서 공연이 있었다. 『중앙신문』에 따르면, "白々教 事件"은 "김용호(金用浩) 일작(一作) 겸 연출"[37], "지금으로부터 십년 전 경기도를 주로 이러난 세계범죄사상의 전율적 대살인사건!"을 다

32) 박종인, 『땅의 역사』 2, 상상출판, 2018, 313면.
33) 조희진, 「식민지시기 색복화 정책이 전개 양상과 추이」, 『국학연구』 16, 한국국학진흥원, 2010, 723면.
34) 김복준, 『경성 살인사건』, 우물이 있는 집, 2022, 106면.
35) 번역자 김석희에 따르면 '일본어'에 대비되는 '조선어'의 관계 역시 동일한데, 일본어이든 조선어이든 서민을 착취하기는 마찬가지이며, 김사량은 언어뿐 아니라 색 자체가 권력이 되는 식민지 상황을 포착하고 있었다(김사량, 같은 책, 233면).
36) 「백백교 사건」, 『수륙경제신문(水産經濟新聞)』, 1946.7.9.-1946.7.14., 1946.7.16., 1946.7.18.-1946.7.21., 1946.7.23.-1946.7.24., 1946.7.26., 1946.7.28.; 『공업신문(工業新聞)』, 1946.7.10., 1946.7.12., 1946.7.20.-1946.7.21.
37) 『중앙신문』, 1946.7.8., 1946.7.17.

루고 있고, 전(全) 십이경(景)이었다. 이후 1948년 2월 18일 『평화일보』[38]에는 악극사(樂劇舍) 신춘 공연 광고가 실리는데, 이때 역시 김용호 작, 연출이었다. 2월 18일부터 제일극장(第一劇場)에서 공연이 있었으며, "사실비활극(事實悲活劇)"으로 소개되었다. 1948년에는 17경(景)으로, 살육편(殺戮篇)과 복수편(復讐篇)으로 나뉘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십일년 전 양평(楊平)에서 이러난 경세(驚世)의 대사건! 살인! 부녀롱락(婦女弄絡)! 등 무시무시한 사건의 연속!"이라고 소개되고 있었다. 2월 19일에는 서울극장 안내가 눈에 띈다.

1930년대-1940년대 '백백교 서사'는 '유사종교'라는 규정의 자장 아래 놓여 있었다. 치안의 관점에서 이 사건은 식민지 당국의 감시를 피해 신도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교주와 그 수하들이 저지른 조직적 범죄였다. 이때 우민(愚民)은 희생자이면서도 동시에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시각은 이후 '백백교 사건'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서사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3. 1960년대-1990년대: 성범죄 가해자와 함께 즐기는 도착적 시선

1969년 9월 6일 개봉한 영화 〈요마백백교〉는 하한수가 감독하였다.[39] 현재 시나리오만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원작은 '우망'으로 표기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장르'를 "시대극/사극, 멜로/로맨스, 종교"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착실한 기독교도인 귀연(도금봉)"과 "한 집에 자란 대학생 대성(황해)"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설정을 도입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 내에서 '월진사'가 "예수교 따위를 신봉하고 끝내 대원님의 분부를 거역한다면 널 살려둘 수는 없다"고 외치자, '귀연'은 "허다한 사람을 납치해서 정조와 목숨을 뺏고 재산을 털어먹는 엉터리 사교따윈 난 믿을 수 없다! 죽일테면 죽여봐!"라고 맞받아친다.[40] '교주'는 '귀연'을 천원광산으로 보내라 명령한다. '일만'과 '대성'은 '귀연'이 유괴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41]

38) 『평화일보』, 1948.2.18.-1948.2.19.
39) https://www.koreafilm.or.kr/library/search/scenario/DCKO002939(2022.11.24. 검색)
40) 〈요마백백교〉 시나리오, 21면.

'간부'들은 천원광산에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린다.[42] '대성'은 '교주'와 결사적 격투를 벌이고, 함께 계곡 아래로 떨어진다.[43] 그러나 '대성'은 곧 기어올라와 '귀연'과 팔을 끼고 하산한다.[44] 이처럼 〈요마백백교〉는 '종교 대 종교'의 관점에서 기독교와 백백교를 맞세워 극적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있다.

1989년 이문현은 『백백교』를 출판한다. '장편실화소설'을 표방한 이 텍스트 뒤에는 "실록 백백교(白白敎) 자료"가 실려 있다. 이 텍스트는 '전용해'와 간부들이 저지른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이 과정에서 교주 '전용해'와 백백교 간부들의 이상 행동이 자세히 묘사된다. 이 텍스트는 '전용해'가 자신과 간부들 사이의 권력 관계에 '성'이라는 요소를 개입시키고, 이를 통해 충성심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백백교 간부들은 여신도들의 교주 배알 행사가 백백교의 종지(宗旨)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여신도 사냥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자신들 역시 이를 나누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자진하여 희생자 물색"을 해왔다는 것이다. '전용해'는 여신도들을 "간부들에게 하사하여 간부로 하여금 능욕케" 했고, "반항하는 여신도는 간부들을 시켜 살해했다."[45]

텍스트 차원이 아닌 실제 사건 층위에서 '전용해'와 간부들의 행동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는 교주와 간부들이 너무 쉽게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전장의 병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인간을 죽이는 데 강력한 거부감을 느끼고, 그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도 전에 죽음을 맞는다고 한다. 전쟁의 역사는 동료 인간을 죽이는 것에 대한 이 타고난 거부감을 극복하도록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계발하는 과정의 역사로 볼 수 있다[46]는 것이다. 이를 참조하면, '전용해'가 특정한 방식으로 간부들을 훈련시켜, 그들이 인간을 죽이는

41) 〈요마백백교〉 시나리오, 23면.
42) 〈요마백백교〉 시나리오, 34면.
43) 〈요마백백교〉 시나리오, 36면.
44) 〈요마백백교〉 시나리오, 37면.
45) 이문현, 『백백교』 상, 자유시대사, 1989, 199면.
46) 데이브 그로스먼, 이동훈 역, 『살인의 심리학』, 플래닛, 2011, 37면, 49면.

데 대해 갖고 있는 거부감을 제거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문현의 『백백교』에서 교주 '전용해'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고, "그가 그러한 자기 최면에 걸린 만큼 일단 신도가 된 사람들은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 왔었다."[47] 최근 이와 같은 '사이비 교주'의 특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념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48]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사기, 기만 등을 얼마든 저지를 수 있고,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방해를 받으면 충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으므로, 나르시시즘은 사이코패스와도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49] '전용해'와 간부들은 서로의 폭력성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강도를 높여 간다. 시간이 갈수록 폭력성과 가학성이 증폭되고, 저강도의 자극에 만족할 수 없어진 결과, 더욱 강도 높은 자극을 원하는 것으로 그려진다.[50] "가학의 방"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간부 '문봉조'는 "이상한 흥분"을 느끼고, "이성을 잃어"가는데, 이는 "처제의 알몸을 구석구석 눈에 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변태적 흥분이 채찍 대용물을 찾게 만들"고 있었다. "이색적(異色的)인 흥분", "피가 끓고", "천성적으로 지니고 있던 잔인성의 눈마저 뜬" '문봉조'를 보는 '전용해'의

47) 이문현, 같은 책, 262면.

48) 이창익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소위 '사이비 종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이를 악마나 비인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의 소행이라고 치부해 버리는데, 이는 '인간 이하'의 인간이나 '인간 외부'의 인간이 벌인 일이라 생각해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이창익, 『미신의 연대기—지워진 믿음의 기록』, 테오리아, 2021, 371면). 이러한 맥락에서 사이비 종교 백백교 사건 역시 '인간'이 벌인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 교인 역시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이었다는 점을 잊지 않을 때, 백백교와 당대 사회가 맺고 있던 관계를 사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해는 실제 '백백교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백백교 서사'의 측면에서는 텍스트 내에서의 재현 양상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백백교 교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범죄학이나 범죄 심리학에서 범죄자의 성격을 분석하는 도구를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49) 리처드 테일러, 공민희 역,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알에이치코리아, 2022, 316면.

50) 전봉관은 전용해가 결코 호화를 누린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불안 심리가 현실 망각의 수단으로 술과 계집에 빠지게 했고 자극을 구해 변태가학적 성격자로 몰고 갔다"고 분석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설명은 문장 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전용해'가 아니라 '전용해'의 '불안'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상정, 동정하는 것으로 읽힐 위험성을 지닌다(전봉관, 『경성기담—근대 조선을 뒤흔든 살인 사건과 스캔들』, 살림, 2006, 146-147면).

눈 역시 "흥분으로 타오르고", "매질하는 문봉조의 눈은 광인의 눈"이었다.[51] 이처럼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폭력성은 교주와 간부들 사이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 '전용해'는 '김산욱'에게 "얼굴이 예쁜 소녀를 하사"[52]하는데, 이때 '여성'은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되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백백교 교주 '전용해'와 간부들의 범죄 행각을 떠받치는 구조였다는 점이 드러난다.

'전용해'와 간부들이 살해와 성폭력에 중독되어 가는 과정은 반복적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이 반복은 "악마적인 것"의 성격을 강화시키는데, 그것은 내용이 없고, 지루한 것을 가리킨다.[53] 내용이 없는 '악행'을 반복한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새로운 의미를 지닌 것처럼 '악행'을 묘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텍스트 내에서 진행이나 변화가 적고, 서프라이즈나 미스터리나 문제성이 내포된 대목들이 별로 없는 서사물은 금방 독자를 지루하게 만들기[54] 때문에 이 텍스트는 백백교 간부들을 검거하여 고문하는 일본인 형사를 등장시킨다. 공권력을 지니고 새롭게 등장한 '악'이 성 고문을 자행하는 가운데, 그는 '유정전'의 "고백에 자극을 받아 색다른 흥분에 잠기어 있는 표정"[55]을 짓는다. '교주'의 '악행'에 대해 질문하면서 '오끼(沖)' 형사는 호기심을 보이며, '교주'가 자행한 성폭력을 묘사하기를 강요한다.

이문현의 『백백교』가 보여주는 성적 도착은 교주 '전용해'와 간부들이 펼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일본 경찰이 여성에 대한 성적 고문을 가하는 장면을 그린다. 이 텍스트는 표면적으로 성폭력을 행하는 주체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그들의 희열을 끈질기게 추적한다. 이 노골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독자를 은밀하게 초대하여, 백백교를 비판하기 위해 묘사한다는 태도가 갖는 기만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포르노그라피 매체들은 성적 탐닉에 빠져 있는 사회의 도구[56]라는 점에서,

51) 이문현, 『백백교』 하, 자유시대사, 1989, 26-27면.
52) 이문현, 같은 책, 79면.
53) 쇠얀 키르케고르, 임춘갑 역, 『불안의 개념』, 다산글방, 2007, 266면.
54) 제랄드 프랭스, 최상규 역,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999, 219면.
55) 이문현, 같은 책, 221면.

이 텍스트는 단죄하는 가운데 더 음침하게 '즐기는' 음화(淫畵)에 다름 아니다.

1993년 1월 9일 개봉한 영화 〈백백교〉[57]는 현재 확인 가능한데, 이 영화 역시 이문현의 『백백교』와 동일한 구도를 보인다. 첫 번째 장면에서 아래와 같은 자막이 제시된다.

> 본영화는 이단 사이비종교의 범죄사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그릇된 종교생활에서 오는 인간성 상실과 그 허구의 범죄. 여기에 1930년대 살인집단 백백교의 말로를 그 당시 대법원 검사논고의 심리를 토대로 하여 픽션을 가미해 사실에 가깝게 영화한 것이다. 따라서 진실한 종교만이 정신적 지주가 될수 있음을 본영화는 증명할 것이다.[58]

위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영화 〈백백교〉는 사이비 종교의 범죄사를 파헤치는 것을 표방한다. 문제는 '고발'이라는 이 의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들을 통해 전달되는가에 있다. 예컨대 눈을 뜨고 '전용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화숙'을 살해하고[59] '전용해'가 입교식에서 헌성금을 바친 교도들의 따귀를 때리고,[60] "용두수안배식"에서 교도들의 벗은 엉덩이를 치는 데서[61] 확인할 수 있듯 무자비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묘사된다. 노련한 사기꾼은 자신을 향한 의심에 격노하고, 모욕감을 표시하거나 정서적인 작전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를 지배[62]한다는 점에서, '전용해'가 신도들에게 보이는 다채로운 반응은 통제 수단의 다양함을 보여준다.

'전용해'가 "특별은총을 받아 두 알몸이 되었으니 눈을 뜨고 내 얼굴을 보아라"고 허락할 때, 관객은 '전용해'와 함께 두 여성의 누드를 보고, 두 여성이 눈을 뜨는 것까지 본다.[63] 영화의 '나레이션'은 시간의 흐름을 중지시키고,

---

56) 캐슬린 배리, 정금나・김은정 역,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2002, 44면.
57)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4556(검색일: 2022.11.24.)
58) 「백백교」(심의대본), 2면.
59) 「백백교」(심의대본), 4면.
60) 「백백교」(심의대본), 7면.
61) 「백백교」(심의대본), 16면.
62) 스텐 키틀・크리스티안 제렌트, 류동수 역, 『이웃집 사기꾼』, 애플북스, 2013, 63면.
63) 「백백교」(심의대본), 10면.

화면 밖에서 '백백교'를 비판하지만, 관객이 보는 시각 정보는 위와 같은 폭력적인 장면들인 것이다. 결말에 이르러 영화의 '나레이션'은 "과연 백백교의 교주는 자살하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두개골 앞에서 "80대 노인으로 분장한" '전용해'가 웃고 있다.[64] 사이비 교주의 죽음에 의문을 제시하고,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관객을 비웃는 장면은 영화 전체의 주제와 배치되게도 '전용해'를 신비화한다. 이러한 장치들로 인해 '전용해'는 외설적인 악행을 중단하지 않고, 살아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1960년대-1990년대 '백백교 서사'의 화두는 단연 '성(性)'이었다. '전용해'와 간부들을 결속시키는 힘은 여성 신도들을 향한 성적 착취였고, 포르노그라피적 쾌락이 전면화되고 있다. 실제 '백백교 사건'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묘사의 층위에서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데는 특정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적 가학과 이를 즐기는 것으로 상정된 주체는 교주 '전용해'와 간부들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을 심문한 일본인 형사를 비롯하여, 독자와 관객까지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함몰은 '백백교 서사'가 희생자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을 방해하고, 은밀하게 가해자의 시각에 동화되게 만드는 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4. 2000년대-2020년대 : 백백교 자금(資金)의 수수께끼와 음모론의 대두

2000년대 들어 '백백교'를 다룬 만화가 발표되는데, 텍스트 내에서 아이들을 생매장한 '아이무덤' 위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는 상황이 설정된다. 2009년-2010년 출판된 한혜연의 『애총』은 1936년 Y읍에서 사이비 종교 '백백교'의 세 번째 학살사건이 발생했다는 데서 출발한다.[65] 현재 시점에서 "모든 주부들이 원한다는", "타운하우스"[66]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묘사된다.

64) 「백백교」(심의대본), 27면.
65) 한혜연, 『애총』 1, 씨네21, 2009, 37면.
66) 한혜연, 같은 책, 95면.

과거 살해 사건이 일어났던 땅 아래 아이들이 해골로 변하는 장면에 5컷[67]을 할애하고, 다음 컷에서는 아이들이 묻힌 위에 "가람타운하우스 신축 현장" 표지판이 그려진다.[68] 작가는 「사이비를 생각한다」에서 "산 채로 묻힌 아이들의 영혼은 어찌 되었을까. 그곳에 집이 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에서 "애총'(=兒塚, 아이무덤)이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69] 당시 살해 사건의 목격자인 '정순덕'은 정운건설의 회장으로 '가람타운하우스'에서 생을 마감한다. 이 뉴스를 본 지역 주민들은 가람타운하우스가 조선시대부터 아이무덤 자리였고, 일제 때 사이비교가 몇 백 명을 몰살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눈다.[70] '김동주'는 가람타운하우스를 "어린 영혼들을 위한 고아원"[71]으로 명명한다. '애총' 위에 '타운하우스'를 짓는 설정을 통해 '백백교'에 대한 상상력이 토지 '개발'을 둘러싼 오늘날의 이야기와 접속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백백교 서사'가 토지 '개발' 이야기로 포문을 연 것은 상징적인데, 2010년대 이후의 소설은 '백백교 자금'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백백교 사건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자금으로 이동했다는 점이 이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라는 것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교주 '전용해'와 백백교 간부들이 축적했던 '자금'의 행방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통해 '백백교'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보물찾기' 모티브로 변환되었다. 이는 또한 '팩션' 열풍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역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정주현은 『외딴섬』 1을 발표한다. 이 텍스트에서는 1963년 한 어부가 조난을 당한 섬을 수색하니, 그곳에 모두 흰옷을 입은 백백교도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는 설정이 제시된다. "믿기 힘드시면 신문 찾아보세요"라고 권유하며, 신빙성을 부여한다.[72] 섬으로 찾아 들어간 인물들은 총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아닌 존재들을 발견한다.[73] 보물을 찾기 위해 수수께끼를

67) 한혜연, 앞의 책, 202-203면.
68) 한혜연, 같은 책, 204면.
69) 한혜연, 같은 책, 211면.
70) 한혜연, 『애총』 2, 씨네21, 2009, 178면, 180면.
71) 한혜연, 『애총』 4, 씨네21, 2010, 9면.
72) 정주현, 『외딴섬』 1, 라떼북, 2012, 33-34면.
73) 정주현, 같은 책, 72면.

풀던 '추태섭'은 건물 안에 있는 특수한 장치로 인해 섬에 있는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간다.[74] 비밀을 푸는 데 결정적인 '구슬'을 손에 넣은 '한기혁'은 마음을 바꾸어 동굴을 빠져 나온다.

2013년 발표한 『외딴섬』 2에서도 '전용해' 사망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일본 경찰은 전용해가 자살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면서, 그 대신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정말로 죽었는지가 "끝내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75]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텍스트에서도 비슷한 사람을 죽여 자살로 위장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다고 언급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백교가 신도들로부터 갈취를 했었던 재산"이었고, 경찰이 전국 각처에서 시체를 발굴했지만, 재산에 대해서는 찾아낸 것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재산의 대부분을 숨겨 두었을 것이라 생각[76]했다는 것이다. 당시 백백교의 자금을 빼돌린 인물들이 섬을 "거대한 보물창고"로 개조, 보물을 찾으러 온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함정을 설계했다.[77] '한기혁'이 다시 시작된 '보물찾기'를 언급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78] 『외딴섬』은 허구적 요소를 삽입하여,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보물찾기와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등장시킴으로써 백백교 사건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도진기는 『유다의 별』 1・2를 발표한다. 이 텍스트 역시 백백교의 자금에 대한 암호를 수수께끼로 제시하고, 경찰 '이유현'과 변호사 '고진'이 이를 추적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본격적인 미스터리 장르를 표방하면서 교주 '전용해'가 현재까지 살아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백백교 사건 당시 '미하시 경무국장'이 시신의 상태와 관련하여 은폐했던 사실을 초반에 제시한다.[79] 국과수에서 보관 중이던 백백교주 머리에 대해 인간 존엄성을 침해

74) 정주현, 같은 책, 199면.
75) 이수광, 『대한민국 12 비사』, 일상과 이상, 2013, 47-48면.
76) 정주현, 『외딴섬』 2, 라떼북, 2013, 16면.
77) 정주현, 같은 책, 29면.
78) 정주현, 같은 책, 56면.
79) 도진기, 『유다의 별』 1, 황금가지, 2014, 15면.

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폐기를 권고한 신문 기사[80]를 인용한다. 이후 '김성노'가 죽지 않은 교주 '전용해'라는 사실과 그가 살인을 저질렀던 이유가 인간의 쓸개 때문이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백백교의 또 다른 실체는 바로 인간 목장"이었고, 바로 이 쓸개가 백백교의 숨겨진 '재산'이었다.[81] 과거 '전용해'였던 현재의 '김성노'는 인간의 쓸개라는 "좋은 걸 그동안 멧돼지니 곰이니 허접한 쓸개를 먹으려니 입맛이 이만저만 더러운 게 아니"[82]었다고 말한다. 그의 말은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범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위험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적 양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아주 큰, 반사회성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의 주요 특징[83]을 모두 보여준다.

흥미로운 지점은 '어둠의 변호사'라는 별명이 붙은 '고진'[84]에 대해 변호사 '화미령'이 가하는 비판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교주 '전용해'와 간부들만 악마화해 왔던 기존의 시각과 대조를 이룬다. 예컨대 '고진'이 '백백향'에서 비밀리에 신도 살해를 자행했다는 사실과 교주의 명령에 따라 "여자들을 산 채로 묻어 버린 경우도 흔했다"는 것을 말할 때, '화미령'은 "계속 듣고 있으려니 머리가 좀 어질어질하네요"라고 말한다. '고진'은 '이유현'이라면 그가 잔인한 이야기로 냉랭한 화미령 변호사를 무너뜨렸다는 쾌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냐고 말했을 것이라 떠올린다.[85]

> "고 변호사님은 굉장히 모순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제가요?"
> "광기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비웃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호감이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 고진은 팔을 저어댔다.

---

80) 도진기, 앞의 책, 35면.
81) 도진기, 『유다의 별』 2, 황금가지, 2014, 305-306면.
82) 도진기, 같은 책, 306면.
83) 이수정·이은진, 『이수정·이은진의 범죄심리 해부노트』, 김영사, 2021, 114면.
84) 도진기, 『유다의 별』 1, 황금가지, 2014, 48면.
85) 도진기, 같은 책, 371-372면.

"천만에요. 그건 호감이 아니라 제게 수수께끼이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것에 대한 동경.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물며 비웃다니요."[86]

위와 같이 '화미령'은 '고진'이 '백백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이중적 태도를 지적한다. 백백교 사건을 비판하면서도 호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일 정도의 과도한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수수께끼'와 모르는 것에 대한 '동경'을 내세우며 이에 대해 변명하는 '고진'의 몸짓은 미스터리 장르의 관습에 충실히 따르는 탐정 '고진'뿐 아니라, 이를 읽고 있는 독자와도 겹쳐진다. 프랑코 모레티의 "추리소설의 캐릭터들은 실제로 무기력하다", "성장하지 않는다"[87]는 단언을 참고할 때, '고진'은 '김성노'의 정체를 밝혀내는 과정을 통과한 후에도 성장하지 않는다. '화미령'은 '고진'에게 "인간을 의심하고, 내내 인간의 악의를 생각하고, 가끔씩 시체도 눈앞에서 만나고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라고 묻는다. '화미령'은 '고진' 역시 "사람의 목숨에는 그리 관심이 없었다는 듯한 이상한 기분"[88]을 느낀다. 물론 텍스트 내에서 '화미령'의 이와 같은 지적 역시 속임수였다는 점이 드러난다. 즉 결말에 이르러, "화 변호사님은 인간의 악에 진저리를 치는 순수하고 섬세한 감성을 지닌 여자의 연기를" 하고, "저 고진을 인육 먹는 살인마와 동급 취급을 해 가면서 철저하게 단죄"[89]한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전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전용해'의 핏줄이 아니면서도 '김성노'를 속여 재산을 갖고 떠났다는 '화미령'의 비밀까지 폭로된다.[90]

오늘날 누군가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멋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나르시시즘이 성공, 이력, 부, 권력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나르시시즘적 구조는 조직, 가족, 사회 전체를 특징짓기도 하며, 개인과 환경 사이에는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양자는 서로를 규정짓는다.[91] 이와 같은 분석은

86) 도진기, 앞의 책, 374면.
87) 프랑코 모레티, 조형준 역, 『공포의 변증법—경이로움의 징후들』, 새물결 출판사, 2014, 173면.
88) 도진기, 『유다의 별』 2, 황금가지, 2014. 322-323쪽.
89) 도진기, 같은 책, 355면.
90) 도진기, 같은 책, 384면.
91) 배르벨 바르데츠키, 이지혜 역, 『나르시시스트 리더』, 와이즈베리, 2018, 14면, 27면.

'나르시시스트'인 교주 '전용해'를 비판하면서도, 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고진'의 성격을 보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 "자존감과 자기만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현 시대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92]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의 별』은 미스터리 장르의 문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동시에 탐정 '고진'으로 대표되는 나르시시즘적 문화가 '전용해'와 같은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에 열광하는 독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을 포착하고, 이를 구조화한다.

2016년 발표된 문병욱의 『사건 치미교 1960』은 '일러두기'를 통해 텍스트의 구성 방식을 직접 밝힌다.[93] '치미교'라는 사이비종교는 "국가를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이고, "산 사람들을 잡아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실험"을 하고, "그 결과물로 탄생한 VPF[94]를 전국에 퍼뜨"린 후 "테마란을 개발해서 나라를 속여먹고 있다."[95] 일본제국육군이 설립한 13특수학교에서 생화학 무기 연구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익힌 '곽해용'[96]은 전후 춘천에서 치미교를 개창하고 본격적으로 포교활동을 시작한다.[97] 치미교는 혼돈의 세월을 겪고 피폐해진 민심에 나라가 주지 못한 마음의 안식을, 기댈 곳을, 도피처를 제공한 것인지도 모른다[98]는 전언으로 텍스트는 마감된다. 살인은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위계 구조 등 귀중한 정보를 알려 준다[99]는 점에서, 이 텍스트는 사이비종교가 질병을 창궐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치료책을 제공한다는 음모론의 전개 과정에서 살인이 맡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묘사하고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들어 범죄 사건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백백교 사건'은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개된 바

92) 키스 캠벨, 박선웅 역, 『여자는 왜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가』, 갈매나무, 2013, 258면.
93)"본 이야기는 1930년대 희대의 사이비교단 백백교와 다큐멘터리 〈House of Numbers: Anatomy of an Epidemic〉에서 모티브를 얻은 픽션으로, 실제의 지명과 브랜드명을 사용하였지만 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일러둡니다"(문병욱, 『사건 치미교 1960』, 리오북스, 2016, 4면).
94) Viscera Pus Fungus, 장기농유발균을 가리킨다(문병욱, 같은 책, 229면).
95) 문병욱, 같은 책, 34-35면.
96) 문병욱, 같은 책, 74면.
97) 문병욱, 같은 책, 132면.
98) 문병욱, 같은 책, 403면.
99) 피테르 스피렌부르그, 홍선영 역, 『살인의 역사』, 개마고원, 2011, 9면.

있다.[100] "범죄의 예능화"라는 용어로 간명하게 표현되듯 범죄가 자주 엔터테인먼트로 소비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유행은 연쇄 범죄 등이 '나'와 무관한 것이라는 심리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101] '백백교 사건' 역시 이와 같이 다루어진 측면이 있지만, 과거의 사건을 소환하여 현재의 사이비종교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 역시 언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단순한 흥미나 호기심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범죄'가 이제는 우리 삶에까지 은밀하게 다가와 있다는 일종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분석[102]은 주목을 요한다. 범죄는 우리 삶 가까이까지 다가와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피해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103]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2020년대 '백백교 서사'는 우리 시대의 '종교'라 할 수 있을 '자본'에 경도되어 있다. 그리고 공식적인 발표나 역사적으로 공인된 '사실'에 의심을 품으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는 '음모론'에 탐닉한다. 대중의 집단적 꿈이 발현된 결과로 새로운 서사 장르가 출현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해명하는 작업[104]이라는 점에서 '백백교 서사'는 1937년의 사건을 해석해 내는 현재 우리의 이해 방식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글에서는 '백백교 사건'을 다룬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193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발표된 텍스트를 '백백교 서사'로 지칭하였다. '백백교 사건'은 소설뿐 아니라, 악극, 시나리오,

100) 〈김복준의 사건의뢰〉, 2020.3.13., https://www.youtube.com/watch?v=w_hejNLEWC4 (검색일: 2022.11.30.); 〈JTBC 사건반장〉, JTBC, 2020.10.29., https://www.youtube.com/watch?v=wf6lAyZAUMY(2022.11.30. 검색); 〈역사읽어드립니다〉, 2021.1.8.,https://www.youtube.com/watch?v=BMNHw7bbgaI(2022.11.30. 검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40회, SBS, 2022.8.11., https://www.youtube.com/watch?v=RZJu_E2ZpPo(2022.11.30. 검색)

101) 권일용・고나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알마 출판사, 2018, 263면.

102) 권일용, 『내가 살인자의 마음을 읽는 이유』, 21세기북스, 2022, 4면.

103) 권일용, 같은 책, 7면.

104) 김기봉, 『역사들이 속삭인다—팩션 열풍과 스토리텔링의 역사』, 프로네시스, 2009, 85-86면.

만화, 예능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장르에 걸쳐 형상화되었다. '백백교 사건'은 역사적인 결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백백교 서사'가 초점화하고 있는 지점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백백교 사건은 당대 피식민 대중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언론에서는 백백교 교주를 '악마화'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한편, 이 사건을 조선 사회의 치욕으로 규정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 식민 통치자는 백백교를 반사회적 사교 유형의 신종교 단체로 규정하면서 사회 전반의 불안과 모순을 이 '사이비 집단'의 일탈로 치부하였다. 백백교 교주에게 현혹된 교도들을 '어리석은 백성'으로 취급할 때,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다. 백백교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공포 섞인 호기심이라는 점은 전 시기에 걸쳐 지속된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에 나타난 변화는 백백교 교주와 간부들의 '성(性)' 착취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출현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관심이 어떻게 묘사되는가와 관련된 표현 층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예컨대 폭력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묘사하면 할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초점화되지 못하고, '교주'의 잔인함을 반복적으로 묘사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주의 도착적인 성적 희열이 표면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재현은 가해자의 악마성이 강화되는 반면 피해자를 더욱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2000년대 이후 관심의 초점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방향으로 이동한다. '전용해'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가정, 그리고 그가 숨겨 둔 재산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음모론이 대두된다. 다른 한편 가해자인 백백교 교주에 대한 전적인 비판, 피해자인 백백교도에 대한 동정과 연민, 당대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고발이라는 구도가 가시화된다. 범죄의 예능화라는 우려 섞인 시선 속에서, '백백교 서사'의 '소비자'로서의 윤리적 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백교 서사'는 당대 식민 통치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도착적인 성 인식으로 이동한 후, 백백교 자금 및 교주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모 과정을 분석하여 '백백교 서사'의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한국 문학사 및 한국 문화사에서의 '백백교 서사'의 계보를 고찰할 수 있었다. 한국의 사이비 종교는 '백백교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고, 이를 형상화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 텍스트 역시 창작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후속 과제에서 수행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김사량, 김석희 역, 『빛 속으로』, 녹색광선, 2021.
도진기, 『유다의 별』 1, 황금가지, 2014.
_____, 『유다의 별』 2, 황금가지, 2014.
문병욱, 『사건 치미교 1960』, 리오북스, 2016.
박태원, 『금은탑』 1, 깊은샘, 1997.
_____, 『금은탑』 2, 깊은샘, 1997.
이문현, 『백백교』 상, 자유시대사, 1989.
_____, 『백백교』 하, 자유시대사, 1989.
정주현, 『외딴섬』 1, 라떼북, 2012.
_____, 『외딴섬』 2, 라떼북, 2013.
한혜연, 『애총』 1, 씨네21, 2009.
_____, 『애총』 2, 씨네21, 2009.
_____, 『애총』 3, 씨네21, 2009.
_____, 『애총』 4, 씨네21, 2010.
〈백백교〉, 〈(요마)백백교〉
『공업신문(工業新聞)』, 『동아일보』, 『박문』, 『수륙경제신문(水産經濟新聞)』,
『조광』, 『조선일보』, 『중앙신문』, 『평화일보』

고병철, 『일제하 종교 법규와 정책, 그리고 대응』, 박문사, 2020.
곽형덕, 「김사량의 일본어 소설 생성과정 연구—〈풀숲 깊숙이〉와 〈산의 신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8,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245-275면.
구인모, 「사교(邪敎) 대(對) 과학 그리고 문학—백백교(白白敎) 사건을 둘러싼 내러티브적 실천들」, 『사이間SAI』 16,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4, 85-122면.
권일용, 『내가 살인자의 마음을 읽는 이유』, 21세기북스, 2022.
권일용・고나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알마 출판사, 2018.
김기봉, 『역사들이 속삭인다—팩션 열풍과 스토리텔링의 역사』, 프로네시스, 2009.
김미지, 「박태원(朴泰遠)의 『금은탑(金銀塔)』: 통속극(通俗劇) 넘어서기의 서사(敍事) 전략(戰略)—「우맹(愚氓)」과 「금은탑(金銀塔)」의 판본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7(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265-290면.
김미지강(金美智江), 「김사량 『草深し』 소고」, 『인문과학연구』 1(2),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281-303면.
김보애, 「김사량문학 연구—식민지 지식인의 내면풍경」,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2020.
김복준, 『경성 살인사건』, 우물이 있는 집, 2022.
김석희, 「김시명(金時明)의 생애와 "친일"—식민지 관료소설로서의 『풀 속 깊이』를 출발점으로」, 『일어일문학연구』 75권 2호, 한국일어일문학회, 2010, 87-106면.
류수연, 「통속성의 확대와 탐정소설과의 역학관계」, 『구보학보』 1, 구보학회, 2006, 107-120면.
문지현, 「전시체제기(1937-45) 일제의 신종교 정책과 신종교단체 검거사건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9.

박종인, 『땅의 역사』 2, 상상출판, 2018.
윤인로, 「일제말기 한국문학의 생극론적 이해를 위한 시론—김사량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22, 동남어문학회, 2006, 133-161면.
윤해동 · 이소마에 준이치 편, 『종교와 식민지 근대—한국 종교의 내면화, 정치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책과함께, 2013.
이병렬, 「박태원의 〈금은탑〉 연구: 소설의 허구화 과정을 중심으로」, 『숭실어문』 15, 숭실어문학회, 1999, 331-354면.
이수광, 『대한민국 12 비사』, 일상과 이상, 2013.
이수정 · 이은진, 『이수정 · 이은진의 범죄심리 해부노트』, 김영사, 2021.
이은선, 「근대 '미신적(迷信的) 치료' 비판과 계몽적 위생 담론의 전개 과정 연구」, 『우리어문연구』 67, 우리어문학회, 2020, 197-224면.
이창익, 『미신의 연대기—지워진 믿음의 기록』, 테오리아, 2021.
이희원, 「일제 말기 김사량 소설의 공간 형상화 전략 연구」, 『한국민족문화』 77,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201-232면.
장성규, 「일제 말기 박태원의 파시즘 인식과 대응—사소설 연작과 『금은탑』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7, 구보학회, 2011, 45-63면.
_____, 「전형기 '조선''근대''문학'을 둘러싼 세 겹의 위기와 대응」, 『한국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89-115면.
전봉관, 『경성기담—근대 조선을 뒤흔든 살인 사건과 스캔들』, 살림, 2006.
조성면, 「박태원의 장르실험과 재앙의 상상력—실화소설 『금은탑』 다시 읽기」, 『동남어문논집』 38, 동남어문학회, 2014, 37-59면.
조희진, 「식민지시기 색복화 정책이 전개 양상과 추이」, 『국학연구』 16, 한국국학진흥원, 2010, 681-730면.

무라야마 지준, 최길성 · 장상언 역, 『조선의 유사종교』, 계명대 출판부, 1991.

Barry, Kathleen, 정금나 · 김은정 역,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2002.
Campbell, Keith, 박선웅 역, 『여자는 왜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가』, 갈매나무, 2013.
Fritze, Ronald, 이광일 역, 『사이비역사의 탄생—거짓 역사, 가짜 과학, 사이비종교』, 이론과실천, 2010.
Grossman, Dave, 이동훈 역, 『살인의 심리학』, 플래닛, 2011.
Kierkegaard, Søren, 임춘갑 역, 『불안의 개념』, 다산글방, 2007.
Kittl, Steen and Saehrendt, Christian, 류동수 역, 『이웃집 사기꾼』, 애플북스, 2013.
Moretti, Franco, 조형준 역, 『공포의 변증법—경이로움의 징후들』, 새물결 출판사, 2014.
Prince, Gerald, 최상규 역,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999.
Shermer, Michael, 류운 역,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바다출판사, 2007.
Spirenburg, Pieter, 홍선영 역, 『살인의 역사』, 개마고원, 2011.
Tambling, Jeremy, 이호 역, 『서사학과 이데올로기—서사의 운명과 열린 읽기의 즐거움』, 예림기획, 2000.

Taylor, Richard, 공민희 역,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알에이치코리아, 2022.
Walton, Kendall, 양민정 역, 『미메시스—믿는 체하기로서의 예술』, 북코리아, 2019.
Wardetzki, Bärbel, 이지혜 역, 『나르시시스트 리더』, 와이즈베리, 2018.

〈김복준의 사건의뢰〉, 2020.3.13.,
https://www.youtube.com/watch?v=w_hejNLEWC4(2022.11.30. 검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40회, SBS, 2022.8.11.,
https://www.youtube.com/watch?v=RZJu_E2ZpPo(2022.11.30. 검색)
〈역사읽어드립니다〉, 2021.1.8.,
https://www.youtube.com/watch?v=BMNHw7bbgaI(2022.11.30. 검색)
〈JTBC 사건반장〉, JTBC, 2020.10.29.,

【Abstract】

A Genealogical Study on 'Baekbaekkyo(白白敎) Narratives' from the 1930s to the 2020s

: Focusing on the Cultural Representation of Rewriting Regarding Colonial Security, Perverted Sex, and Conspiracy Capital

Lee, Eun-Seon*

This study took notice of the fact that texts dealing with 'Baekbaekkyo' have been continuously created from the 1930s to the 2020s. 'Baekbaegyo narratives' have undergone considerable changes between texts containing the perspectives of the people of the time and today's 'mystery genre' products. The 'Baekbaekkyo Incident', which was exposed in 1937, greatly shocked the Joseon society at the time. It was mainly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s and public order in connection with the position of the colonial authorities, which defined Baekbaekkyo as a 'pseudo-religion'. From 1938 to 1939, Park Tae-won published "*Woo-maeng* (愚氓)" serially. In 1940, the magazine *Jogwang* (朝光) published the records of Baekbaekkyo trial, and Kim Sa-ryang published "*The Grass is Deep* (草深し)."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he texts written in the 1960s through the 1990s is that intertest was concentrated on the issue of 'sex' in the 'Baekbaekkyo Incident.' In the process of criticizing the evildoing of the Baekbaekkyo leader, a reversal occurred so that sexually perverted perspectives came to the surface. In 1969, the movie 〈(Yoma) Baekbaekkyo〉 was released, in 1989, Lee Mun-hyeon's *Baekbaekkyo* first and second editions were published, and in 1993, the movie 〈Baekbaekkyo〉 was released.

In the texts written in the 2000s through the 2020s, intense curiosity about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burial site of the Baekbaekkyo incident or the whereabouts of the Baekbaekkyo funds was revealed. The assumption that religious leader Jeon Yong-hae might have not died was sometimes presented as a mystery. From 2009 to 2010, Han Hye-yeon's comic books *Ae Chong* 1・2・3・4 were published. From 2012 to 2013, Jung Joo-hyun's *Lonely Island* 1・2 were published. In 2014, Do Jinki's Star of Judas 1・2 were published, and in 2016, Moon Byungwook's *Incident Chimikyo 1960*

* Lecturer, Brightcollege, Hankyong National Univ.

was published. The 'Baekbaekkyo narrative' star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lonial ruler at the time, the focus of its attention shifted to perverted gender awareness, and then the narrative was changed into to a conspiracy theory surrounding Baekbaekkyo funds and the death of its leader. By analyzing this transformation process, the scope of the study of 'Baekbaekgyo Narrative' could be expanded, and the genealogy of 'Baekbaekgyo Narrative' in Korean literary history and Korean cultural history could be considered.

Keywords: Baekbaekkyo, 'Baekbaekkyo narrative', pseudo-religion, religious cult, mystery.

접수일: 2022.12.31.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3.